

“푸른 베레, 평화를 지키다”

“10월 24일, 오늘은 제80주년 유엔의 날이다!”

1945년 전쟁 폐허 속에서 창설된 유엔은 인류의 평화와 안보, 인권과 번영을 위해 쉽 없이 걸어왔다. 세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전쟁을 예방하며, 개발과 협력의 장을 마련해 온 유엔의 80년 역사는 곧 인류가 평화를 향해 함께 걸어온 여정이기도 했다.

우리에게 유엔은 더욱 각별하다. 1950년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파병과 국제사회의 지원 덕분에 자유를 지켜 낼 수 있었고, 전쟁 이후 잿더미 속에서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희망의 꽃을 피우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재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부대가 그 상징 중 하나다.

해외파병 임무 중인 장병들이 착용



김도형 육군소령
남수단재건지원단
(한빛부대)

한 푸른 베레모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상징이다. 한빛부대 장병들 또한 평화를 나타내는 이 푸른 베레모를 쓰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희망찬 미래를 일구고 있다.

주보급로(MSR) 보수작전으로 올해 기준 2500여 km의 끊어진 도로를 잇고 보수하며 지역 왕래와 구호물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했다. 한빛농장에선 벼 수확을 지원해 식량 자급의 희망을 심었고, 직업학교를 운영해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을 전수하는 등 지역 사회에 큰 신뢰를 쌓고 평화를 일구는 토대가 되고 있다.

우리의 손길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남수단 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지키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평화의 초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군인의 사명은 유엔 평화유지 파병 활동을 하면서 인류 공동의 안녕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 파병지에서 활약하는 국군 장병들은 국가대표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한빛부대 역시 ‘남수단에 희망을, 대한민국에 영광을!’이란 슬로건을 높이 들고 주어진 임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있다.

유엔의 날을 맞아 한빛부대 장병들은 다짐한다. “푸른 베레모의 이름으로 우리는 끝까지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이역만리 떨어진 남수단에서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이젠 세계 평화를 위해 매 순간 헌신하며 남수단의 희망찬 미래와 선배 전우들의 송고한 정신을 당당히 이어 나갈 것이다.

배운 것을 힘으로, 다짐을 행동으로



조성희 중사
육군17보병사단 번개대대

최근 부대는 미 1스트라이커여단 예하 2-12포병대대의 전술훈련에 참관할 뜻깊은 기회를 얻었다. 타국의 군사훈련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컸다.

동두천 훈련장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처음 마주한 장면은 쏟아지는 폭우에도 흐트러짐 없이 훈련에 임하는 미군 장병들의 모습이었다. 우의나 우산 하나 없이 훈련에 몰두하는 그들의 모습은 ‘훈련도 전쟁처럼’이란 말의 의미를 실감 나게 해 줬다.

특히 155mm M777A2 견인 곡사포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개 및 사격절차 등 미군의 훈련현장은 포반장의 정확한 명령 하달, 이에 따른 포반원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진흙탕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임하는 자세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에 즉각 반응하고

실전처럼 움직이는 포반을 만들기 위해

강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똘똘 뭉친 포반을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

청산리대첩 105주년, 김좌진함의 이름으로 다짐하다

가을 내음이 성큼 다가오던 지난 20일, 청산리대첩 전승 105주년 기념식 현장에 섰다. 민족의 정기가 서린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청산리의 함성’은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었다. 김좌진 장군의 용기와 결단,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군의 숨결이 지금도 살아 있는 듯했다. 김좌진 장군의 이름을 단 함정의 승조원으로서 그 정신을 몸소 느끼는 순간이었다.

당시 독립군의 배후에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동포의 헌신이 있었다. 그들의 피와 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 기념식장에서 ‘만세 삼창’을 외치며 생각했다. 105년 전 그분들께서 지키려 했던 조국, 지금 우리가 수호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다.

김좌진함은 김좌진 장군의 이름을 계승한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스러운 함정, 잠수함이다. 우리는 김좌진 장군의 기개를 마음에 새기고 “청산리의 정신으로 조국의 바다를 지킨다”는 각오로 매일 임무에 임하고 있다. 하늘도, 창도 없는 심해의 좁은 잠수함에 서도, 혹은 작전 중 긴장감이 감도는



최경민 중사
해군잠수함사령부
95잠수함전대

순간에도 종종 청산리의 전투를 상상해 본다. 그때의 독립군처럼 우리 또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오늘의 투사들’이다. 조국을 향한 마음만큼은 10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당시는 동포들이 구해 준 무장으로 전투에 임했다면 오늘날은 국민이 만들어 주시고 구매해 주신 무기체계로 작전에 임한다.

김좌진함 승조원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은 남다르다. 역사책에 나오는 독립전쟁 영웅의 이름을 단 함정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다. 우리의 한 번의 항해, 한 번의 경계근무가 국민의 안녕과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 노력한다. 또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해군이 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청산리대첩 105주년 기념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깊은 바닷속에서 임무 완수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해 준 시간이었다. 김좌진 장군과 독립군을 비롯한 선조들께서 피로 지켜 낸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바다에서 수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굳게 자리 잡았다.

김좌진 장군의 정신은 결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오늘도 심해의 김좌진함에서, 우리 승조원의 가슴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김좌진 장군이 그날 청산리의 산맥을 넘어 승리의 깃발을 휘날렸듯이 우리 역시 심해에서 대한민국의 깃발을 굳건히 지켜 낼 것이다.

김좌진함은 앞으로도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최전선에서 김좌진 장군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함정으로 항해를 이어 갈 것이다. 청산리의 함성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김좌진함 승조원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다.

등 단지 보여 주기식이 아닌 ‘실제 전장처럼’ 철저히 준비돼 있었다.

훈련 장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여군과 남군의 비율이 평준화된 포반의 구성이었다. 체급과 신장은 다르지만 전투현장에선 성별을 떠나 전장을 지키는 한 ‘군인’으로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임무에 임하는 자세를 보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훈련 후 대대본부에 들러 미군 부대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100년 넘는 전투 속에 대한민국에서 임무를 수행한 발자취를 되짚어 보며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현장과 더불어 지휘통제실에서 지휘통제와 지속지원 역할을 맡아 묵묵히 부대를 지탱하는 대대원들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동안 야전에서 직접 포를 운용하는 임무에 집중하다 보니 지속지원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겨 왔던 듯하다. 그러나 이번 견학 때 작전은 단 한 명의 손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번 미군 부대 견학은 대한민국 여군 포반장으로 복무 중인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군인으로서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에 즉각 반응하고 실전처럼 움직이는 포반을 만들기 위해 포반장으로서 강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똘똘 뭉친 포반을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분량: 1600자 이내 (공백 포함)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일보 홈페이지 내 ‘병영의 창 기고하기’ 배너 통해 양식 확인 후 이메일로 제출(현역 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사전검토 필수). 증명사진(최소 1MB 크기)과 함께 채택 시 기프티콘 수령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포함. 글의 분량이 최대 1600자를 넘지 않도록 유의.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mletter@mnd.mil
기타: ‘병영의 창’ 등에 글이 게재된 분에게는 응모한 휴대전화 기반 카카오톡으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가입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 및 기프티콘 분실 시 재발송 불가합니다.
문의: (군)947-3713, (일반)02-2079-3713